

광주서 첫 '청룡영화상' 단편상 나왔다

허지은·이경호 연출 '신기록' 수상 쾌거 '가정 폭력' 소재 5개월에 걸쳐 제작 '지역 신인 영화인들 포기 않도록 도울것'

광주에서 활동하는 허지은(31)·이경호(35) 감독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이 연출한 '신기록'은 지난 23일 열린 '39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올해 최고의 단편영화를 뽑는 '정정원 단편영화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관려기사 19면>

광주시와 광주영상위원회의 '다양성영화제작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500만원을 지원받아 만들어진 이 영화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에 걸쳐 만들어졌다. 23분에 걸친 영화를 통해 '가정 폭력'이라는 묵직한 소재를 대사보다는 영화 언어로 잘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룡영화상 측은 "점점이 없던 두 여성이 소통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담았다"는 심사평을 남겼다. 전주국제영화제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우수 영화제에서 입상한 7편의 본선 진출작과의 경쟁에서 거둔 성과라 지역 영화계는 이번 수상 소식을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허지은·이경호 감독은 시상 소감에서 호명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안함을 나타냈다. 그는 "주연을 맡은 이태경 배우 외에도 광주 연극무대에서 활동하는 정경아, 노희설씨와 박혜운, 이고은, 전정도씨 등 배우들의 고생이 컸다"며 "오테승 촬영감독과 힘을 보태준 김소영 감독, 배급사인 호우주의보 백선우 대표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일일이 이름을 나열했다.

허지은·이경호 감독의 협업은 계속된다. 이들은 다양성영화제작 지원을 받아 최근 차기작 '해미를 찾아서' (가칭)의 촬영을 마쳤다. '신기록'에 이어 여성이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조명하고자 했던 이들은 차기작에서는 대학 내 위계 성폭력에 맞서는 '미투 운동'을 다룬다. 25분 안팎 분량으로 편집 작업에 들어간 이 영화는 내년 1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허지은(오른쪽)·이경호 감독이 단편 '신기록'으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3일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영화 '신기록'

"더 좋은 영화를 만들라는 응원이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화를 함께 만들어 온 광주영화영상인연대와 광주여성영화제 등의 노

력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희도 동료로서 지역의 신인 영화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 생각합니다." /박성천 기자 bhj@kwangju.co.kr

세상과 부조화, 저항의 목소리 투영

시산맥 감성기획시선 당선 이환 시집 발간

"여러 해 시를 붙들고 씩씩했지만 무딘 언어와 서툰 생각들이 잘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선다고 따라 갈 일도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잠 못 이룬 날들에 위로하며 내일을 다시 궁리해야겠습니다." 시산맥 제19차 감성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으로 이환 시인의 '세상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기 시작했다'가 발간됐다.

모두 50여 편이 수록된 시집에는 '면도기', '피로사회', '곧 망할 집', '폭주족', '뭇의 반역', '침묵의 뇌관' 등 세상과의 부조화, 저항의 목소리가 투영돼 있다. 한용국 시인의 해설처럼 그의 시에서는 "시와

세계의 난투극" "피투성이 된 시와 세계"가 느껴진다.

"세련된 도시의/ 품격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세상과 발맞추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끝없이 목숨을 손질해야 한다// 아침마다/ 제 얼굴 마주한 채/ 칼의 서약을 한 자들이 와르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도기 중에서)

위의 시 '면도기'는 아침마다 면도하고 출근하는 이들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다. 면도를 "칼의 서약"이라는 야수성으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야수성은 인위적으로 잘

려지는 게 아니다. 화자는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직장인의 비애를 역설적으로 읊조리고 있다.

한용국 시인은 '야수성의 언어와 천진의 꿈'이라는 해설에서 "시인의 야수성이 저항하는 것은 바로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다. 그 세계는 운동 부조리로 가득 찬 곳이다. 당연한 것이 당연시 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개인들의 삶은 비극으로 가득하다"고 평한다.

한편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이환 시인은 2011년 '우리誌(지)'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산맥시회 특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환 시인의 야수성이 저항하는 것은 바로 시인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다. 그 세계는 운동 부조리로 가득 찬 곳이다. 당연한 것이 당연시 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개인들의 삶은 비극으로 가득하다"고 평한다.

한편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이환 시인은 2011년 '우리誌(지)'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시산맥시회 특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5차 광주학 콜로키움 오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전라도가 어떻게 한말 의병항쟁의 중심지가 됐을까? 올해 제 5차 광주학 콜로키움이 26일 오후 5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열린다.

이번 콜로키움은 흥영기 교수(순천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가 '한말 호남지역의 의병항쟁'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호남의 병이 언제 왜 일어났는지, 활동양상과 전투방식은 어떠한지 문헌과 사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 매년 5회 이상 진행해 왔던 광주학 콜로키움은 이날 5회를 끝으로 한해를 마무리한다. 문의 062-670-74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창작 관현악곡 4개 작품 선정 최우수작 아르메니아 출신 미란 '영웅들의 맹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관현악곡 공모에 아르메니아 출신 트 살리키안 미란의 '영웅들의 맹세-영웅들을 위한 교향시' 등 4개 작품이 선정됐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사업'은 올해 1차년도 사업으로 국내·외 저명 작곡가 4명에게 위촉 의뢰한 관현악곡을 제작해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 기회 제공과 이를 활용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국내에서 12작품, 국외에서 6작품 총 18개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트 살리키안 미란의 '영웅들의 맹세-영웅들을 위한 교향시'가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현

재 그리스 공군 콘서트 밴드 작곡자인 트 살리키안 미란은 광주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2관 편성 관현악곡으로 묘사했다.

우수작은 김신의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의한 교향적 환상곡, 기작은 임유미의 '임의 오월, 광주의 오월' 과 김민경의 '죽은자의 꿈' 두 작품이 수상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국제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는 세계화를 위한 사업취지에 맞게 국의 신장자들의 창의적인 작품수준과 높은 참여율이 매우 고무적이다. 창작 작품의 독창성, 파급효과, 향후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연말까지 악보집을 발간하고, 내년에 음악회(초연)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670-746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 소외계층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아시아문화원 등 6개 기관 '나라사랑·생명사랑' 진행

아시아문화원(원장이기표)과 독립기념관 등 6개 공공기관은 최근 광주동초등학교 본교 및 충효분교를 방문해 '나라사랑·생명사랑' 교육 프로그램을 합동으로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은 아시아문화원을 비롯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기념관, 한국수목원관리원 등 문화·관광분야의 6개 공공기관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6개 기관 노사가 참여해 채택한 공동선언의 실행 프로그램의 하나다.

6개 기관은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 기관의 자원과 노하우

를 공유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인 '나라사랑·생명사랑'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시아문화원 '찾아가는 5·18민주평화기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파충류와 양서류 이야기', 국립생태원 '동물의 삶에서 엿본 우리의 삶 이야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재미있는 해양생물 이야기', 독립기념관 '국가상징', 한국수목원관리원 '종자전문가' 등 각 기관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주동초등학교의 임용 교감은 "평소 학생들이 관심은 많지만 직접 실험하고 체험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직접 찾아와서 교육해줘 무척 감사하다"며 "나라사랑·생명사랑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붕위의 막걸리

매주 수요일 밤 11시